

밴드 Guns N' Roses의 앨범 분석 -1집 앨범 “Appetite for Destruction” 리듬 분석-

양성렬,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tmdwnsqe@daum.net
*entheos@chungwoon.ac.kr

Album analysis by the band Guns N' Roses -Rhythmic analysis of the 1st album “Appetite for Destruction”-

Yang-Seong-Ryeol,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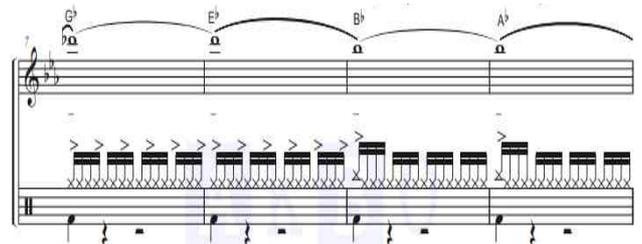
21세기 들어 영상의 역할은 대단히 커지고 있다. 영상을 이용해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홍보물 등으로 만들어 내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 되어 없어선 안 될 매체가 되었다. 영상을 만들어 내고 영상의 포인트와 연출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효과음과 BGM을 사용하는데 BGM중에는 유명한 가수나 밴드의 노래도 사용이 되고 있다. 그 중 ‘토르 : 러브 앤 썬더’에서 나온 건즈 앤 로지스의 ‘Welcome to the Jungle’ 노래를 리듬 분석하여 영상에서 어떠한 장면에서 사용되었고 시청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고 이해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목적이 있다.

1. 서론

현대에는 많은 영상 매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을 뒷받침 해주는 효과음과 BGM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BGM은 많은 가수들과 밴드의 음악도 사용 되어 영상을 시청하면서 BGM의 대한 흥미도 끌어들여 잘 모르는 음악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건즈 앤 로지스의 음악은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능에도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영화 ‘토르 : 러브 앤 썬더’에 나오는 건즈 앤 로지스의 1집 앨범 “Appetite for Destruction”의 ‘Welcome To The Jungle’ 노래를 이 논문에서 리듬을 분석해보며 어떤 리듬을 사용했고, 어떠한 느낌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목적이 있고, 영화 장면에서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이해하려는 목적이 있다.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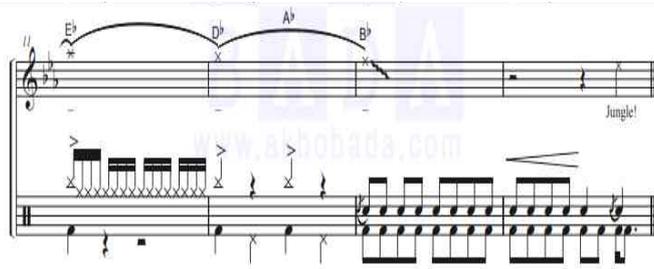
2.1 인트로 (Intro)



[그림 1] 인트로 일부분

위 악보를 보면 인트로 지점에서 하이햇과 킥으로 리듬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반복되는 스트로크로 인해 임팩트가 없어 악센트로 포인트를 주어 지루함을 없애고 긴장감을 주고 있다. 악센트 포인트를 보면 점 8분 음표에 한 번씩 악센트를 주어 16분 음표로 이루어져 있지만 셋잇단 음표를 사용한 것처럼 효과를 주고 있다. 이처럼 하이햇의 악센트를 주어 인트로 부분의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토르와 적들의 대치하는 장면을 알려주는 효과를 냈다.

[그림 2] 인트로 11마디~14마디



위 악보를 보면 하이햇과 킁만 사용했던 부분의 바로 뒤에 나오는데 13마디부터 보면 스테이와 킁을 8분음표로 이루어 연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 플램으로 꾸며주면서 앞에서 주었던 긴장감을 이어 더욱 긴장감을 주며 리듬과 음악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

14마디를 보면 크레센도를 주어 긴장감을 극대로 만들어 주어 시작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극 중 토르가 점프해서 착지하는 장면이 있는데 노래에 'jungle!' 부분과 일치하게 배치해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효과를 냈다.

2.2 벌스(Verse)



[그림 3] 벌스 1마디~3마디

위 악보를 보면 벌스의 리듬을 볼 수 있다. 리듬을 보면 킁을 2, 4박자의 n박자에 넣음으로써 1, 3박자와 이어지게 들리게 된다. 이렇게 연주 함으로써 첫 번째 박자가 강조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있다. 위 연주를 들어보면 킁이 연달아 연주되면서 스테이와가 강조되어 들리게 된다. 극 중에서 토르의 전투 장면의 야성미와 남성미를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주었다.

아래 [그림4]를 보면 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에 자주 나오는 카우벨로 연주하고 있다. 건즈 앤 로지스의 앨범을 들어보면 카우벨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우벨은 건즈 앤 로지스의 시그니처 드럼연주라고 할 수 있다. 14마디를 보면 필인 연주를 하고 있는데 노래와 같이 보면 다른 악기들과 같이 리듬을 맞추어 섹션 연주를 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벌스 11마디~14마디



2.3 브릿지(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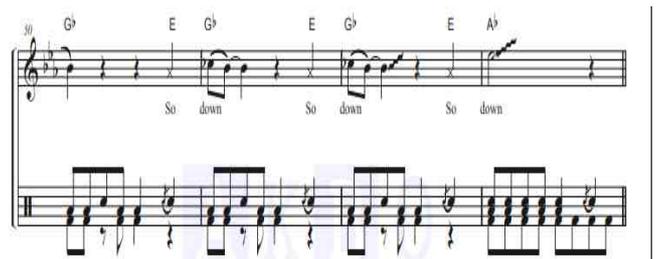
[그림 5] 브릿지 시작 일부분

위 악보를 보면 4분음표 라이드 심벌 플레이를 알 수 있다.



라이드 심벌을 사용하고 4비트 연주를 하여 벌스보다 차분한 느낌을 주어 긴장감을 늦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후에 다시 긴장감을 더욱 강조시킬 수 있는 플레이이다.

[그림 6] 브릿지 8마디~11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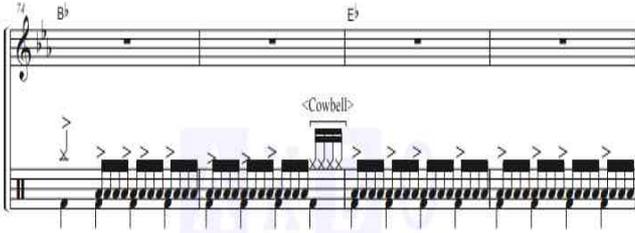
위 악보를 보면 라이드 심벌 연주 이후 긴장감을 주기 위해 탐탐과 킁, 스테이로 연주하고 있다. 이렇게 연주를 하며 후에 나오는 기타 솔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11마디에 플램 연주는 다른 연주자들에게 다음으로 넘어 간다는 신호로 사용되고 있다.

2.4 D-브릿지(D-Bridge)

[그림 7] D-브릿지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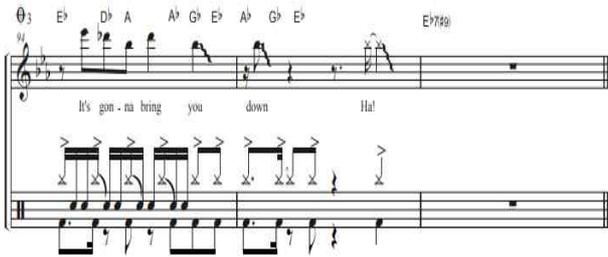
[참고 문헌]

- [1] Guns N' Roses, 「Appetite For Destruction.」 앨범 [1987년]
- [2] Pitch Fork, 「80년대 최고의 노래」 웹
- [3] 켄 메차펠토, 「렛츠 드럼 = Let's drum : 드럼의 기초부터 밴드 연주까지, 초보자를 위한 드럼 코스」 서울 : 시그마북스, 2016년
- [4] Rolling Stone, 「Rolling Stone 선정 최고의 음악」, Rolling Stone [2021년],



위 악보를 보면 카우벨로 D-브릿지의 시작을 알린다. 플로어탐과 킥으로만 연주를 하고 플로어탐 연주에 악센트를 넣어 긴장감을 더해주고 콩가와 웨이크가 연주를 같이 함으로써 정글을 달리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노래의 핵심 리듬이라 볼 수 있다.

2.5 피날레 (Finale)



[그림 8] 피날레 2마디

위 악보를 보면 크래쉬 심벌과 스네어 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에 이음줄로 싱크로페이션을 표현하면서 다른 악기들과 같이 싱크로페이션 연주를 한다. 마지막부분에서 한 박자를 쉬며 보컬의 소리를 돋보이게 하고 심벌을 치며 마무리 한다. 극 중 토르가 사원에서 날아 돌아오며 착지하는 장면을 색션의 끝나는 부분과 일치하게 배치해 전투가 끝났다는 효과를 주었다.

3. 결론

본문을 보면 리듬이 어렵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중들에게 쉽고 반복적인 리듬을 들려주고 반복적인 기타 리프로 연주 함으로써 들으면 기억에 남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억에 많이 남아 현재까지도 광고나 영화, 예능에서 사용되어 노래가 나오면 어떤 영상에서 나온 노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더욱 기억에 남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다른 앨범 수록곡도 영상에 BGM으로 사용되어 현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